

학령기 아동의 감정 측정을 위한 정서 어휘 선정 및 군집구조 분석: 3~6학년을 대상으로

김도형¹⁾

요약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감정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정서 어휘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이들 어휘의 군집구조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6년과 2025년에 걸쳐 3단계의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해 예비 어휘를 추출하였고, 2차 조사(2016)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어휘의 신뢰도와 군집구조를 분석하고 대표 어휘를 선정하였다. 3차 조사(2025)에서는 9년의 시차를 두고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재수행하여 정서 어휘 구성 체계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어휘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명확히 구분되며, 하위 차원에서는 의미적 유사성에 따라 군집화되는 구조를 보였다. 둘째, 선행연구 선정 빈도, 전반적 행복도와와의 상관성, 어휘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표 어휘를 선정하였다. 셋째, 긍정 정서는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부정 정서는 경험 빈도가 낮을수록 전반적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넷째, 2016년과 2025년 조사 결과 간에 높은 상관성을 보여 정서 구조의 시계열적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정서 측정을 위한 신뢰도 높은 어휘 기반을 제공하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사회정서 평가, 정서교육 프로그램 설계, 정신건강 지원 정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학령기 아동, 감정 측정, 정서, 정서 어휘, 군집분석

I. 서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감정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정서 어휘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이들 어휘의 군집구조와 시간적 안정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정 측정은 정서 발달, 정신건강, 삶의 질, 교육적 개입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되어 왔으며, 특히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측정 도구의 언어적 타당성이 중요하다. 어린이는 추상적 개념보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정서 어휘의 선정은 측정의 신뢰도와 해석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정서(emotion)는 다양한 감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감정의 인식과 표현을 포함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동은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러한 능력은 정서지능과도 관련된다(Salovey & Mayer, 1990). 이처럼 어린이의 정서를 이해하고 측정하는 것은 교육적 개입과 정신건강 지원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서 측정 연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翻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언어적·문화적 적합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정서 어휘는 문화와 언어에 따라 의미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번안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대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는 응답의 정확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 수준과 생활 맥락에 부합하는 모국어 기반 정서 어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정서 어휘를 수집·분석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마다 어휘 구성과 선정 기준이 상이하여 정서 어휘 체계의 표준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부 연구는 성인을 중심으로 수행되거나 특정 정서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정서 어휘 구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구조의 안정성을 검증한 연구도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연구는 정서 어휘 목록을 제시하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이를 측정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적 검증과 장기적 타당성 확보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정서 어휘가 측정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휘 간 구조적 관계와 시간적 안정성이 함께 검증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유지된다면 정서 어휘는 비교적 안정적인 측정 단위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표준화된 도구 개발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둔 반복 조사를 통해 정서 어휘 체계의 지속성을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정서 어휘를 구성하고,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통해 이들 어휘의 구조적 특성과 측정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신뢰도 분석, 행복도와의 상관분석, 군집분석을 통해 대표 정서 어휘를 도출하고, 2016년과 2025년 자료를 비교하여 시간적 안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정서 어휘가 지속적인 측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정서 어휘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사용 양상과 의미가 변할 수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코로나

19(COVID-19)와 같은 사회적 사건은 아동의 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약 9년의 시차를 두고 동일한 구조가 유지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일시적 환경 변화나 특정 세대 효과를 넘어서는 정서 어휘 체계의 안정성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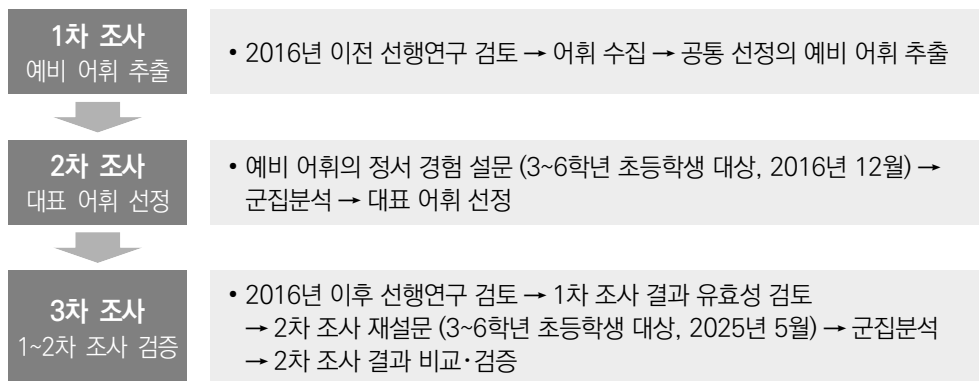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과 2025년 두 시점에 걸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기보고식 응답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 및 정서 이해 능력을 요구하며,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9세 이상에서 신뢰 가능한 응답이 가능하다고 본다(이정미·이양희, 2005: 124). 또한 혼합정서에 대한 이해 역시 10세 전후에서 가능하다는 논의(이은경·이양희, 2006: 98)를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저학년을 제외한 3~6학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12월에 3개 초등학교에서 303부의 설문을 수집하였으며, 결측값을 제외한 23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반적 행복도와외 상관분석은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35부를 제외한 198부를 사용하였다. 2025년 조사에서는 5월에 학교, 학원, 교회 등을 통해 159부를 수집하였고, 결측값을 제외한 13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반적 행복도 분석은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34부를 제외한 99부를 사용하였다. 이들 두 조사는 표집 과정에서 학년 및 성별 분포를 별도로 통제하지 않은 편의 표본 추출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즉 학년 및 성별 분포에 일부 편중이 존재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며, 연구의 결과는 특정 표본에 대한 탐색적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정서 어휘의 선정과 구조 검증, 그리고 시간적 안정성 확인을 위해 3단계 절차로 설계되었다(그림 1). 먼저 1차 조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예비 정서 어휘를 추출하였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2016년 초등학생 대상 설문을 통해 정서 어휘의 구조를 분석하고 대표 어휘를 선정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약 9년의 시차를 두고 동일한 설문을 재실시하여 정서 어휘 체계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정서 어휘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사용 빈도와 의미가 변할 가능성이 있어, 일정 기간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측정 도구로서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특히 단기간이 아닌 일정 기간 이상의 시차를 두고 검증함으로써, 일시적 유행이나 특정 세대 효과가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정서 어휘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정서 어휘 선정을 위한 조사·분석 절차

3. 측정도구 및 연구변인

정서의 경험은 1차 조사에서 추출된 정서 어휘에 대해 각 정서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4점 척도(0=그렇지 않다, 1=가끔 그렇다, 2=그렇다, 3=자주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회상에 따른 기억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 또는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이 아닌, ‘현재 또는 오늘’의 경험을 설문하였다. 정서 경험의 빈도는 아동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척도 구간을 최소화했으며, ‘보통’ 항목으로의 응답 집중을 방지하고자 5점 척도 대신 4점 척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전반적 행복도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단일 문장에 4점 척도로 설문하여 측정하였다²⁾.

2)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1999; 2000)에서 출간한 《심리척도 핸드북 I~II》을 참조하여 척도를 설계하였다. 이 핸드북에서 검토된 총 288개의 심리척도 중에서 본 연구의 설문 척도처럼 ‘그렇지 않다’에 0점(또는 1점)을 주고 ‘그렇다’에 그 정도별로 1~3점(또는 2~4점)의 점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유사하게 설계된 척도로는, 인성검사 1개, 스트레스 질문지 2개, 정신병리검사 4개, 임상심리 5개, 상담심리 1개 등 모두 13개로 확인된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서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선행연구(강혜자·한덕웅, 1994; 안신호·이승혜·권오식, 1993; 이만영·이홍철, 1990; 이준웅·송현주·나은경 외, 2008)에서 널리 활용된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표준화된 정서 경험 값을 바탕으로 유클리디안 제곱거리와 Ward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정서 어휘와 전반적 행복도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과 2025년 조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5. 조사 단계별 분석 방법

가. 선행연구의 검토 (1차 조사)

1차 조사에서는 정서의 구조와 차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어린이의 감정 측정에 적절한 정서 어휘를 추출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국내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축적된 연구를 비교하면, 정서 어휘 선정의 목적과 수집 방법, 대표 어휘의 추출 절차 및 규모가 연구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표 1). 대체로 정서 구조 분석이나 정서 측정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정서와 행복의 관계를 규명(구재선·김의철, 2006)하거나 정서를 행복 측정의 지표로 활용한 연구(서은국·구재선, 2011)도 확인된다. 이들 연구는 정서 어휘 선정의 목적이 상이하더라도, 정서 어휘 목록의 구축을 공통적인 출발점으로 삼는다.

초기 연구에서는 아동 면접(박찬옥, 1990)이나 자유기술식 설문(강혜자·한덕웅, 1994; 이만영·이홍철, 1990)을 통해 어휘를 수집하였으나, 이후 국어사전(안신호·이승혜·권오식, 1993; 강혜자·한덕웅, 1994; 이은경·이양희, 2006) 또는 어휘 자료집(박인조·민경환, 2005)을 활용해 포괄적인 목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이 어느 정도 축적된 이후에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활용해 정서 어휘를 수집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이처럼 예비 정서 어휘의 수집 방법은 설문조사, 국어사전 검토, 선행연구 활용 등으로 요약되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한 연구도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비 정서 어휘가 수집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위를 축소하면서 대표 정서 어휘를 추출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뒤따른다. 대부분의 연구는 유사한 의미의 어휘를 분류·범주화하여 전형적인 대표 어휘로 축약하는 구조를 보인다.

〈표 1〉 선행연구 정서 어휘 선정의 목적과 방법

| 구분 | 선행연구 검토 논문 | | | | | | | | | | | | | |
|-------------------|------------|----|-----|-----|----|----|-----|-----|-----|-----|-----|----|-----|----|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 1. 정서 어휘 선정 목적 | | | | | | | | | | | | | | |
| • 정서 구조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서 측정 척도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복과의 관계 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예비 정서 어휘 수집 방법 | | | | | | | | | | | | | | |
| • 심리검사·설문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어사전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행연구 결과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 수 없음 (미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대표 정서 어휘 추출 방법 | | | | | | | | | | | | | | |
| • 평정(評定) 설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인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집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귀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관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선정된 정서 어휘 수 | | | | | | | | | | | | | | |
| • 예비 정서 어휘 | · | 72 | 213 | 818 | · | · | 145 | 434 | · | 141 | 265 | 22 | 146 | 52 |
| • 대표 정서 어휘 | 63 | 53 | 22 | 80 | 15 | 20 | 22 | 87 | 102 | 57 | 115 | 6 | 35 | 44 |

주: 상단 제목 줄에서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음
^a 박찬욱(1990) ^b 이만영·이홍철(1990) ^c 안신호·이승혜·권오식(1993) ^d 강혜자·한덕웅(1994)
^e 김완석·김영진(1997) ^f 강혜자·한덕웅·전경구(2000) ^g 홍창희(2004) ^h 박인조·민경환(2005)
ⁱ 구재선·김의철(2006) ^j 이은경·이양희(2006) ^k 이준웅·송현주·나은경 외(2008) ^l 서은국·구재선(2011)
^m 김송이·엄진섭·노은여 외(2013) ⁿ 최해연·최종안(2016)

대표 정서 어휘의 추출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어휘 목록에 대한 평정(評定) 설문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 응답자를 구분한 다단계 평정의 설문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대학생 대상의 단일 평정을 수행한 연구(홍창희, 2004; 이준웅·송현주·나은경 외, 2008; 김송이·엄진섭·노은여 외 2013)도 확인된다. 요인분석이 사용된 연구 대부분은 설문 결과에 대해 보완적으로 활용되었고, 요인부하량이나 공통성을 기준으로 대표 어휘를 선별하였다(이만영·이홍철, 1990; 홍창희, 2004; 이은경·이양희, 2006; 최해연·최종안, 2016). 이와 달리 요인분석이 대표 어휘의 선정에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된 연구는 김송이·엄진섭·노은여 외(2013)가 유일하였다.

이외에도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한 어휘를 범주화(안신호·이승혜·권오식, 1993)하거나, 회귀분석과 상관분석으로 의미 중복이 높은 어휘나 행복과의 관련성이 낮은 어휘를 제외한

연구(이은경·이양희, 2006; 서은국·구재선, 2011)들이 보고된다. 이들 선행연구는 방법과 절차의 차이에도, 다양한 정서를 구조화하여 대표 정서 어휘를 선정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흐름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된 대표 정서 어휘를 예비 정서 어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서은국·구재선(2011)의 경우 대표 정서 어휘의 수가 다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6개에 불과해 그 대상을 22개 예비 정서 어휘의 범위로 확대하였다.

한편 정서 어휘의 중복 선정 문제(강혜자·한덕웅, 1994; 한덕웅·강혜자, 2000)가 있거나, 분석 범위를 특정 정서에 한정한 연구(최해연, 2012)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한 연구(이현희·김은정·이민규, 2003; 이선화·김보미·유성은, 2012; 박홍석·이정미, 2016)도 문화적·언어적 맥락의 차이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서 단어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의미와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어(최해연·최종안, 2016: 90), 모국어에 기반한 어휘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Watson et al., 1988; 김송이·엄진섭·노은여 외, 2013: 64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예비 정서 어휘를 구성하고자 한다.

나. 설문조사 및 분석 (2차 조사)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추출한 예비 정서 어휘에 대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경험 빈도를 설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군집분석을 실시해 정서 어휘 간 구조를 파악하고, 각 어휘의 선행연구 선정 빈도와 전반적 행복도와의 상관관계를 함께 고려해 대표 어휘를 선정하였다. 또한 아동의 이해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초등학교 국어사전을 기준으로 어휘의 난이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군집별 대표 정서 어휘를 도출하였다.

다. 1차 및 2차 조사 결과의 검증 (3차 조사)

1차 및 2차 조사는 2016년에 수행되어, 당시 선정된 어휘 체계가 이후에도 유효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서 어휘가 측정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간 경과에도 구조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일정한 시차를 둔 반복 검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약 9년의 시차를 두고 동일한 방식의 설문조사를 재수행하여, 어휘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2016년 이후 발표된 관련 선행연구(장혜진·김영근, 2020)를 추가 검토하여 기존 결과의 타당성을 보완하였다³⁾. 이를 통해 정서 어휘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측정 단위로 기능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 정서 어휘의 추출 (1차 조사)

선행연구 검토 결과 총 14편 논문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선정된 대표 정서 어휘를 빈도순으로 정리하고, 일정 편수 이상 공통적으로 선정된 어휘를 예비 정서 어휘로 설정하였다. 논문 편수의 기준은 긍정 및 부정 정서 어휘에 대해 각각 4편과 7편으로 정하였다. 이는 일상에서 긍정 정서의 비중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 (Carstensen et al., 2000; Zelenski & Larsen, 2000; 최해연·최종안, 2016: 93에서 재인용)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부정 정서 어휘가 긍정 정서보다 세분화된 것으로 보고되어(이만영·이홍철, 1990: 126; 이은경·이양희, 2006: 101; 이준용·송현주·나은경 외, 2008: 102; 최해연, 2012: 74; 최해연·최종안, 2016: 93), 이들 어휘 간에 논문 편수의 기준 격차는 더 발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정서 어휘는 소수 범주로 축약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대표 어휘가 약 5~8개 수준으로 도출될 것을 전제로 이 범위의 3~4배 수준인 20~30개 정도를 예비 정서 어휘의 적정 규모로 설정하였다. 14편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어휘는 긍정 100개, 부정 160개였으며, 이를 빈도 기준으로 정리한 후 의미의 초점이 정서 자체보다 일 또는 사람 등 대상의 상태에 있는 어휘, 다른 어휘와 의미가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어휘는 제외하였다⁴⁾. 다만 '보람된', '자랑스러운', '자신감 있는', '희망적인' 등 인지적 영역⁵⁾을 지닌 긍정 정서는 예비 정서 어휘에 포함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결과 긍정 및 부정 정서 어휘의 선정 기준을 각각 4편과 7편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제외 조건을 반영한 최종 예비 정서 어휘는 총 28개로 도출되었다. 결과적으로 긍정 정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이들 어휘의 구성 비율은 4:3으로 긍정 16개와 부정 12개가 선정되었다(표 2, 표 3).

3) 이호준·이희경(2025) 연구도 있으나, 외국에서 개발된 정서 척도를 변안한 연구에 해당한다.

4) 정서 상태만 아니라 일 또는 사람 등 정서 유발의 원인까지 그 의미에 내포된 어휘로는, '감동적인', '고마운', '좋아하는', '재미있는', '반가운', '정겨운', '실망스러운', '억울한', '미워하는', '아쉬운', '창피스러운', '후회스러운' 등이 있다. '후련한'은 선행연구 선정 빈도가 더 높은 '홀가분한'과 일맥상통하며, '기분 좋은' 등의 어휘는 그 의미가 추상적으로 판단하였다.

5) Mayer et al.(1991; 이은경·이양희, 2006: 99에서 재인용)은 자기 보고식 정서 경험 척도의 어휘 혼동 문제를 지적하며, 정서 어휘가 신체적·인지적·정서적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가령 '졸린, 피곤한, 이완된' 등은 신체적 영역, '적극적인, 주의 깊은, 자랑스러운' 등은 인지적 영역, 그리고 '행복한, 즐거운, 슬픈, 두려운' 등은 정서적 영역에 해당한다.

〈표 2〉 선행연구 검토 논문에서의 예비 정서(긍정) 어휘 선정 결과

| 어휘 | 선행연구 검토 논문 | | | | | | | | | | | | | | 선정 빈도 |
|------------|------------|---|---|---|---|---|---|---|---|---|---|---|---|---|-------|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
| 1. 즐거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2. 편안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3. 기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4. 행복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5. 만족스러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6. 사랑스러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7. 자랑스러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감동적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8. 뿌듯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9. 유쾌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고마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10. 설레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11. 자신감 있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좋아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12. 흐뭇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13. 신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재미있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14. 흥가분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15. 희망적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반가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16. 보람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정겨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후련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감탄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기분 좋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상쾌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성취감 있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안도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흡족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주 : ¹ 어휘 정렬은 선행연구 선정 빈도 순(동일 순위 시 가나다 순)에 의함

²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예비 정서(긍정) 어휘에 해당함

³ 상단 제목 줄에서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음

^a 박찬욱(1990) ^b 이만영·이홍철(1990) ^c 안신호·이승혜·권오식(1993) ^d 강혜자·한덕웅(1994)

^e 김완석·김영진(1997) ^f 강혜자·한덕웅·전경구(2000) ^g 홍창희(2004) ^h 박인조·민경환(2005)

ⁱ 구재선·김의철(2006) ^j 이은경·이양희(2006) ^k 이준웅·송현주·나은경 외(2008) ^l 서은국·구재선(2011)

^m 김승이·엄진섭·노은여 외(2013) ⁿ 최해연·최종안(2016)

〈표 3〉 선행연구 검토 논문에서의 예비 정서(부정) 어휘 선정 결과

| 어휘 | 선행연구 검토 논문 | | | | | | | | | | | | | | 선정 빈도 |
|-----------|------------|---|---|---|---|---|---|---|---|---|---|---|---|---|-------|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
| 1. 우울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2. 슬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3. 외로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4. 화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5. 무서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6. 불안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7. 속상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8. 짜증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9. 괴로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10. 두려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11. 부끄러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실망스러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억울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12. 걱정스러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미워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아쉬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창피스러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후회스러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답답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불쌍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서러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안타까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죄책감 드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지겨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혼란스러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환멸을 느끼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주 : ¹ 어휘 정렬은 선행연구 선정 빈도 순(동일 순위 시 가나다 순)에 의함
²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예비 정서(부정) 어휘에 해당함
³ 상단 제목 줄에서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음
^a 박찬옥(1990) ^b 이만영·이홍철(1990) ^c 안신호·이승혜·권오식(1993) ^d 강혜자·한덕웅(1994)
^e 김완석·김영진(1997) ^f 강혜자·한덕웅·전경구(2000) ^g 홍창희(2004) ^h 박인조·민경환(2005)
ⁱ 구재선·김의철(2006) ^j 이은경·이양희(2006) ^k 이준웅·송현주·나은경 외(2008) ^l 서은국·구재선(2011)
^m 김송이·엄진섭·노은여 외(2013) ⁿ 최해연·최종안(2016)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정서 어휘의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모국어 기반의 정서 어휘를 확보해 문화적·언어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 방식이 갖는 어휘 범위의 제한과 사전 검토 방식이 갖는 일상성 결여라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축적된 성과를 활용함으로써 정서 어휘 수집 과정의 비효율을 줄이면서도 두 방법의 한계를 절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 대표 정서 어휘의 선정 (2차 조사)

가. 신뢰도 검증 및 기술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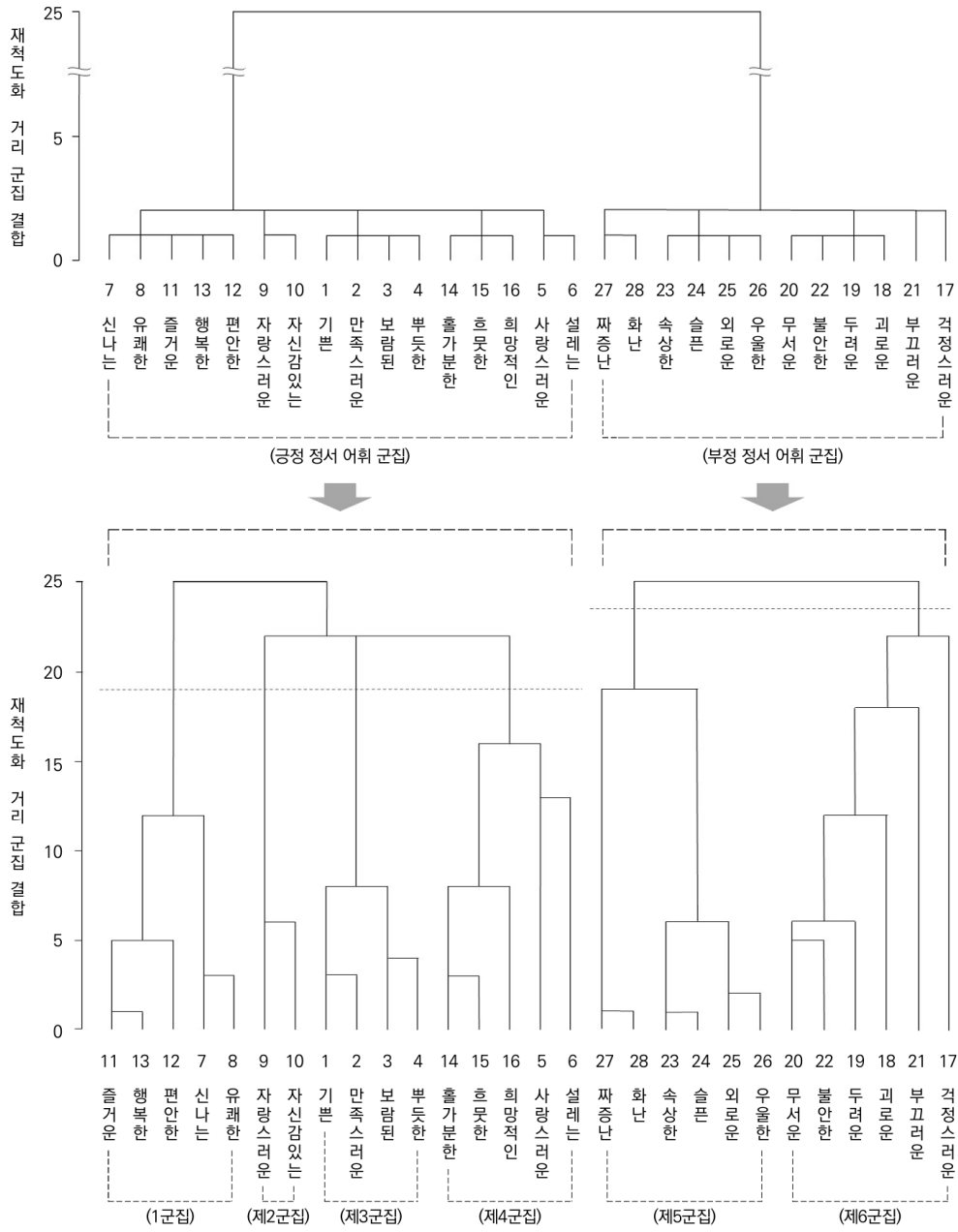
설문 응답의 신뢰도 검증 결과, 예비 정서 어휘의 Cronbach's α 는 0.808로 나타났으며, 긍정(16개)과 부정(12개) 정서로 구분하면 각각 0.942와 0.919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분산분석 결과 항목 간 차이도 유의하였다($F=190.210$, $p<.001$). 전체 평균은 1.521(표준편차 1.147)로, 평균을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 정서 어휘 그룹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평균과 표준편차 간 상관은 긍정 정서에서 -0.886 , 부정 정서에서 0.833 으로 나타나, 긍정 정서는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부정 정서는 낮을수록 응답 일치도가 높았다.

나. 예비 정서 어휘와 전반적 행복도와의 상관분석

전반적 행복도의 평균은 2.374(표준편차 0.721)로, 2점 이상이 응답자의 87.9%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28개 예비 정서 어휘와 행복도의 상관분석 결과, 긍정 정서는 모두 정적 상관을, 부정 정서는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긍정 정서에서는 '행복한', '기쁜', '유쾌한', '만족스러운'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 정서에서는 '우울한', '불안한', '짜증난'이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모든 어휘에서 정서 경험 빈도 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 군집분석

군집분석 결과, 정서 어휘는 상위 수준에서 긍정과 부정 정서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이후 각각에 대해 재분석을 수행한 결과, 긍정 정서는 4개, 부정 정서는 2개의 군집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28개 예비 정서 어휘는 총 6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그림 2).



[그림 2] 군집분석에 의한 예비 정서 어휘의 덴드로그램(2016년 조사)

라. 군집별 대표 정서 어휘의 선정

군집별 대표 어휘는 선행연구 선정 빈도, 전반적 행복도와의 상관계수, 기초 어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표 4).

〈표 4〉 대표 정서 어휘의 선정 기준

| 그룹 구분 (가중치 단위) | 선행연구 선정 빈도 | 전반적 행복도와의 상관계수 (절대값) | 초등학교 기초 어휘 |
|-------------------|--|---|--|
| • 상위 (+) | 총평균 이상 그룹의 평균 이상(9.86 이상, 9.88 이상) | 총평균 이상 그룹의 평균 이상 (0.621 이상, 0.370 이상) | 해당 어휘의 표제어가 초등학교 기초 어휘에 선정된 경우 |
| • 중상위 (가중치 없음) | 총평균 이상 그룹의 평균 미만(7.50 이상 9.86 미만, 9.17 이상 9.88 미만) | 총평균 이상 그룹의 평균 미만 (0.562 이상 0.621 미만, 0.318 이상 0.370 미만) | 해당사항 없음 |
| • 중위 (가중치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어휘* 표제어가 초등학교 기초 어휘에 선정된 경우 |
| • 중하위 (가중치 없음) | 총평균 미만 그룹의 평균 이상(5.67 이상 7.50 미만, 7.75 이상 9.17 미만) | 총평균 미만 그룹의 평균 이상 (0.502 이상 0.562 미만, 0.245 이상 0.318 미만) | 해당사항 없음 |
| • 하위 (-) | 총평균 미만 그룹의 평균 미만(5.67 미만, 7.75 미만) | 총평균 미만 그룹의 평균 미만 (0.502 미만, 0.245 미만) | 관련 어휘* 표제어가 초등학교 기초 어휘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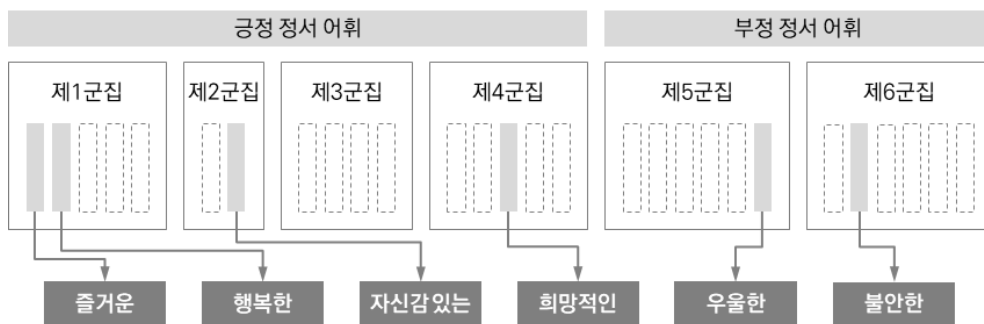
주 : 괄호 안의 결과값 범위는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순임

* 어휘의 표제어뿐만 아니라 명사형과 부사형, 능동형과 피동형의 변형 어휘 등을 포함함

그 결과 제1군집에서는 ‘즐거움’과 ‘행복한’을 대표 어휘로 선정하였다. ‘즐거움’은 군집 내 다른 어휘의 의미를 포괄하며 선행연구 빈도도 가장 높았고, ‘행복한’은 전반적 긍정 정서를 대표하는 포괄적 의미와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 함께 선정되었다. 제2군집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사건 의존성이 낮은 정서이며 자기 성취와 관련된 인지적 긍정 정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자신감 있는’을 대표 어휘로 선정하였다. 제3군집은 만족감 및 자기 고양 정서로 구분되어 제1·2군집의 대표 어휘가 그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대표 어휘를 선정하지 않았다. 제4군집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낙관을 반영하는 인지적 긍정 정서라는 점에서 ‘희망적인’을 대표 어휘로 선정하였다. 부정 정서에 해당하는 제5군집과 제6군집에서는 각각 ‘우울한’과 ‘불안한’을 대표 어휘로 선정하였다. 이 두 어휘는 각

군집의 의미를 포괄하며 선행연구와 행복 연구에서도 핵심 부적 정서로 제시된 바 있어 대표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빈도, 행복도와의 상관성, 기초 어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6개의 대표 정서 어휘가 선정되었다(그림 3). 이들 어휘는 학령기 아동이 의미를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정서 측정 단위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개념의 오해로 인한 응답 오류의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군집별 대표 정서 어휘 선정

3. 1차 및 2차 조사 결과의 검증 (3차 조사)

2016년 이후 발표된 선행연구를 추가 검토한 결과, 장혜진·김영근(2020)이 선정한 36개 대표 정서 단어 중에 16개는 본 연구의 1차 조사에서 도출한 28개 예비 정서 어휘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20개 중 12개는 본 연구의 선정 기준(선행연구 빈도)에 미달하였고, 8개는 기준에 충족했으나 예비 정서 어휘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즉 단어의 의미에 정서 유발의 원인이 내포된 어휘에 해당하였다. 즉 선행연구를 추가적으로 재검토하더라도 예비 정서 어휘의 구성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는 본 연구의 어휘 선정 기준이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비 정서 어휘의 측정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는 0.874(긍정 0.931, 부정 0.871)로 나타나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항목 간 차이도 유의하였다($F=190.210, p<.001$). 전체 평균은 1.444였으며, 긍정 정서(2.025)와 부정 정서(0.898)는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또한 평균과 표준편차 간 상관계수는 긍정 정서 -0.864, 부정 정서 0.905로 나타나, 긍정 정서는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부정 정서는 낮을수록 응답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조사 시점에 따른 예비 정서 어휘별 경험 빈도 비교

| 정서 어휘 | 평균 (3점 만점) | | 표준편차 | | t | p |
|----------|---------------------|---------------------|----------|----------|-------|-------------------|
| | 2016년 조사 (N=233) | 2025년 조사 (N=133) | 2016년 조사 | 2025년 조사 | | |
| • 기쁜 | 2.25 | 2.24 | .787 | .770 | .098 | .922 |
| • 만족스러운 | 2.11 | 2.04 | .849 | .839 | .806 | .421 |
| • 보람된 | 2.06 | 1.92 | .857 | .905 | 1.457 | .146 |
| • 뿌듯한 | 2.07 | 2.01 | .883 | .875 | .639 | .523 |
| • 사랑스러운 | 1.88 | 1.71 | .982 | 1.019 | 1.569 | .117 |
| • 설레는 | 1.92 | 1.93 | 1.020 | 1.001 | -.126 | .900 |
| • 신나는 | 2.45 | 2.42 | .782 | .730 | .408 | .683 |
| • 유쾌한 | 2.20 | 1.99 | .865 | .925 | 2.170 | .031 |
| • 자랑스러운 | 1.91 | 1.92 | .901 | .849 | -.111 | .912 |
| • 자신감 있는 | 2.06 | 2.09 | .920 | .892 | -.348 | .728 |
| • 즐거운 | 2.42 | 2.36 | .756 | .742 | .679 | .498 |
| • 편안한 | 2.30 | 2.11 | .818 | .855 | 2.206 | .028 |
| • 행복한 | 2.36 | 2.34 | .830 | .777 | .251 | .802 |
| • 흥가분한 | 2.02 | 1.68 | .928 | .926 | 3.378 | .001 |
| • 흐뭇한 | 1.98 | 1.75 | .910 | .924 | 2.323 | .021 |
| • 희망적인 | 2.13 | 1.89 | .873 | .885 | 2.578 | .010 |
| • 걱정스러운 | 1.04 | 1.05 | .971 | .928 | -.062 | .950 |
| • 괴로운 | .45 | .49 | .742 | .724 | -.530 | .596 |
| • 두려운 | .47 | .52 | .793 | .703 | -.616 | .538 |
| • 무서운 | .58 | .56 | .863 | .753 | .305 | .761 |
| • 부끄러운 | .67 | .68 | .760 | .820 | -.223 | .823 |
| • 불안한 | .63 | .65 | .916 | .809 | -.210 | .834 |
| • 속상한 | .85 | .78 | .934 | .782 | .663 | .508 |
| • 슬픈 | .70 | .65 | .931 | .718 | .521 | .602 ¹ |
| • 외로운 | .55 | .47 | .900 | .680 | .946 | .345 ² |
| • 우울한 | .52 | .47 | .846 | .691 | .651 | .516 ³ |
| • 짜증난 | 1.06 | .88 | 1.020 | .888 | 1.704 | .089 |
| • 화난 | .97 | .85 | 1.034 | .949 | 1.142 | .2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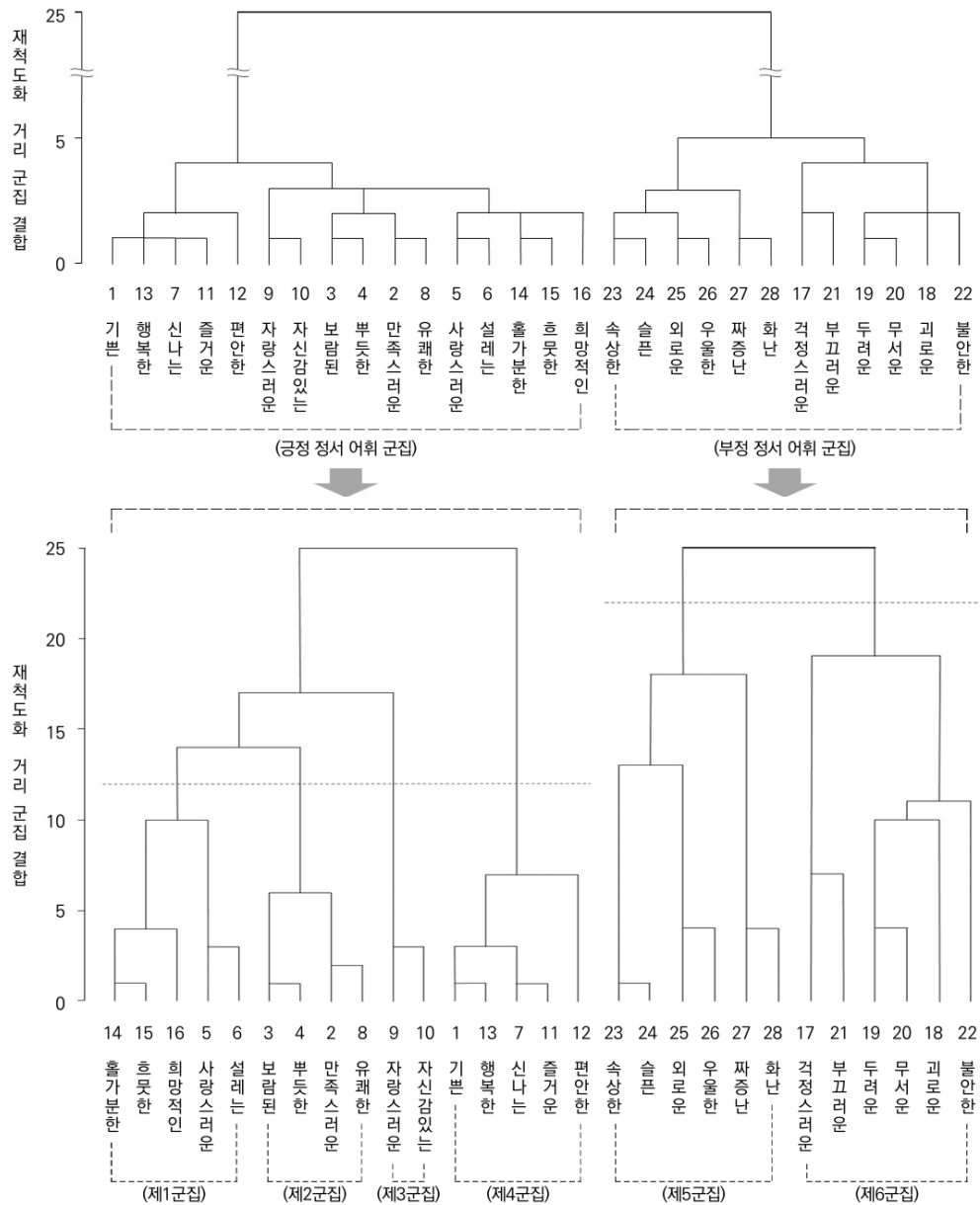
주 :¹ F 통계값이 7.576, 유의확률이 0.006으로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결과의 값임.

² F 통계값이 9.169, 유의확률이 0.003으로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결과의 값임.

³ F 통계값이 4.467, 유의확률이 0.035로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결과의 값임.

평균 순위는 ‘신나는’, ‘즐거운’, ‘행복한’ 순으로 2차 조사와 동일한 상위 구조를 보였으며, 두 시점 간 순위 및 값의 상관계수는 각각 0.961과 0.991로 높은 일관성을 나타냈다. t-검정에서는 ‘유쾌한’, ‘편안한’, ‘흥가분한’, ‘흐뭇한’, ‘희망적인’ 등의 어휘에서 유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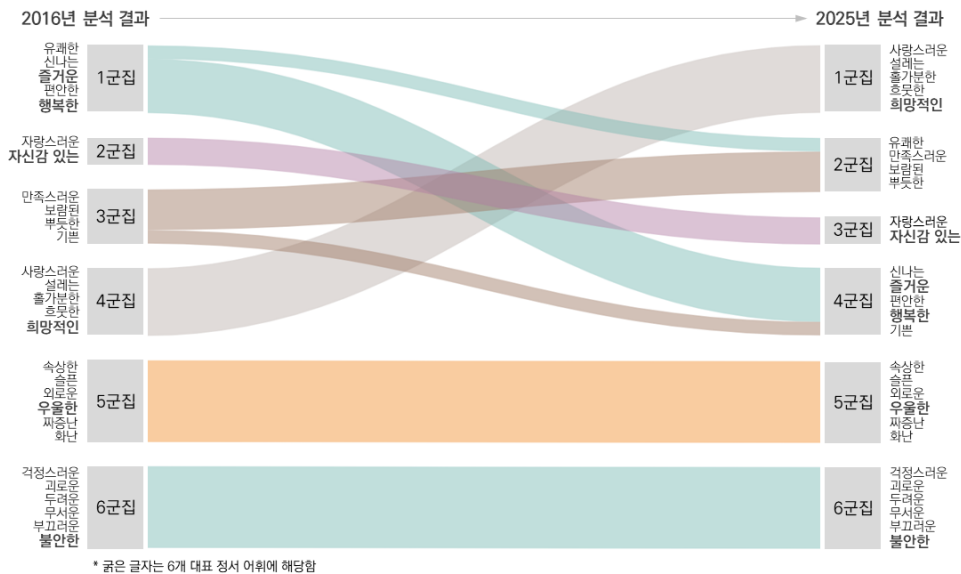
차이가 확인되었으나(표 5), 개별 정서의 경험 수준에서 나타난 변화이며 전체 어휘의 군집 구조는 두 시점 간에 유사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 군집분석에 의한 예비 정서 어휘의 덴드로그램(2025년 조사)

위와 같은 결과는 사회 환경에 따라 정서 경험의 빈도가 변동될 수 있으나, 정서를 인식하고 범주화하는 구조적 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시사한다. 이는 정서 어휘를 일정한 범주로 구조화하고 대표 어휘로 축약하는 공통된 경향이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과도 맥을 같이한다(이만영·이홍철, 1990; 이은경·이양희, 2006; 최해연·최종안, 2016). 한편 전반적 행복도와와의 상관분석에서는 긍정 정서 어휘가 정적 상관을, 부정 정서 어휘는 '걱정스러운'과 '부끄러운'을 제외하고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긍정 정서에서는 '행복한', '기쁜', '만족스러운', '신나는' 순으로, 부정 정서에서는 '두려운', '괴로운', '외로운' 등이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군집분석에서도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상위 수준에서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긍정 및 부정 정서별로 재분석을 수행한 결과 긍정 정서 4개, 부정 정서 2개 등 총 6개 군집 구조가 확인되었다(그림 4). 군집의 구성은 2차 조사 결과와 거의 동일하며, '기쁜'과 '유쾌한'만 군집이 교차된 정도의 미미한 변화만 나타났을 뿐 전체 구조와 대표 정서 어휘 선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림 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차 조사에서 도출된 6개 대표 정서 어휘는 시간 경과 이후에도 유사한 구조와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측정변수로서의 안정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2016년 조사 및 2025년 조사 간 군집분석 결과 비교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서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구조적 특성과 측정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약 9년의 시차를 둔 반복 조사를 통해 정서 어휘 체계의 시간적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서 어휘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구분되며, 하위 차원에서는 의미적 유사성에 따라 군집화되는 구조를 보였다. 이는 정서를 일정한 범주로 구조화하려는 선행연구(박찬옥, 1990; 안신호·이승혜·권오식, 1993; 강혜자·한덕웅, 1994; 이준웅·송현주·나은경 외, 2008; 최해연·최종안, 2016)의 흐름과 일치하며, 이러한 특성이 학령기 아동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는 정서 어휘의 선정 방식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선행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사전 검토, 일부 선행연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데 비해,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선정된 어휘를 빈도 기준으로 통합하고 의미 중복성과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예비 정서 어휘를 체계적으로 선별하였다. 이는 개별 연구 맥락을 넘어 공통적으로 확인된 결과를 종합하여 안정적인 정서 어휘 체계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모국어 기반 어휘를 활용함으로써 언어적 취약성과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번안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김송이·엄진섭·노은여 외, 2013; 서은국·구재선, 2011; 최해연·최종안, 2016).

셋째, 정서 경험과 전반적 행복도 간의 관계에서는 긍정 정서는 정적 상관, 부정 정서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일정한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정서가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의 논의(구재선·김의철, 2006; 서은국·구재선, 2011)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전반적 행복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과적 관계가 아닌 탐색적 수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16년과 2025년의 두 시점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부 정서 어휘의 경험 수준에서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전체 순위와 구조는 높은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이는 정서 경험의 빈도나 강도가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나, 정서를 인식하고 범주화하는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정서 어휘를 범주화하고 대표 어휘로 축약하는 과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과도 맥을 같이하며(이만영·이흥철, 1990; 이은경·이양희, 2006; 최해연·최종안, 2016), 정서 구조의 보편성과 지속성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긍정 정서는 4개의 하위 군집으로 세분화된 반면, 부정 정서는 2개의 군집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구조화된 결과는 아동의 정서 분화 수준과 관련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정서의 분화는 개인이 다양한 정서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이 긍정 정서보다 부정 정서를 상대적으로 덜 세분화하여 인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아동이 부정 정서를 보다 단순화된 범주로 경험하거나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정서 발달 과정에서 부정 정서에 대해 건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강화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정서 측정을 위한 기초 단위로서 정서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선정하고, 그 구조와 신뢰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서 어휘는 likert 척도를 활용한 측정을 통해 긍정 및 부정 정서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개인별 정서 프로파일이나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위한 기초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정서적 위험군을 선별하거나 정서교육의 효과를 점검하는 데에도 유용한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초등학교 3~6학년에 한정되어 일반화에 제약이 있으며, 자기보고식 설문에 따른 상황적 영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전반적 행복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여 정서와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집단을 포함하고, 다차원적 안녕감 지표 및 관찰·질적 자료를 병행하여 정서 경험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어린이 정서 어휘의 구조와 안정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정서 발달 지원과 정서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어린이 정서 측정 도구의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서 어휘는 아동의 정서 상태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초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정서 어휘에 대해 최근의 경험 빈도를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할 경우, 긍정 및 부정 정서의 상대적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 정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긍정 정서 점수가 낮은 아동을 정서적 위험군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평균 대비 편차나 분포 기준을 활용하여 선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는 개인별 정서 프로파일로 제시하거나, 학급 및 집단 단위의 평균과 분포를 시각화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서 어휘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검증된 만큼 해당 연령대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 형태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저학년의 경우에는 교사나 보호자의 보조 설명, 시각적 자료 등을 병행한 적용이 요구된다.

둘째, 정서 어휘 기반의 학교 정서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정서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추어 감정 인식·표현, 정서 조절, 공감 능력 등을 단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동일한 정서 어휘 도구를 반복하여 활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효과를 사전·사후 비교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령 프로그램 시행 전후의 긍정 및 부정 정서 점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서 조절 능력의 향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전반적 행복도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보조 지표에 해당하므로, 정교한 안녕감 측정 도구와의 연계가 요구된다.

셋째, 교사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정서 이해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서 어휘는 아동의 정서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자기보고식 점검을 통해 학급 내 정서 분포를 파악하고, 부정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에 대해 상담이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서 개념과 발달, 정서 어휘 기반 측정 및 해석 방법, 정서 조절 지도 전략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넷째, 가정에서의 정서 소통을 정서 어휘 기반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서 어휘는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부모는 이를 매개로 자녀의 정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 대화에서 '오늘의 기분'을 정서 어휘를 활용해 표현하도록 유도하면, 감정 표현 능력과 공감적 상호작용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정서 어휘를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 활용함으로써 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정서 어휘 기반의 어린이 행복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서 어휘의 구조와 안정성은 정서 경험을 하나의 지표로 체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서의 균형, 특정 정서 군집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집단 간 비교나 시간적 변화 분석이 가능한 지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및 집단 간 정서 격차를 파악하고, 교육·복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섯째, 정서 어휘 연구의 지속적 확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두 시점 자료를 통해 정서 어휘 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였으나, 향후 종단 연구를 통해 발달 단계별 변화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아동 등 다양한 집단에 적용 가능한 정서 측정 체계를 개발하고, 생리적·행동적 자료를 병행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정서 어휘의 과학적

타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학교에서 사회정서 검사를 통해 아동의 정서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서 어휘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기반의 측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검사 도구를 보완하거나 간편한 선별 도구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부정 정서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나타낸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부정 정서를 세분화하여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정서교육에서는 긍정 정서의 강화뿐만 아니라, 부정 정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조절하는 능력을 함께 함양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어린이 정서의 측정은 정서교육과 정책의 출발점이며, 이를 위해 모국어 기반 정서 어휘가 핵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서 어휘와 구조는 아동의 정서를 이해·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이 감정을 건강하게 인식·표현·조절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혜자·한덕용(1994). 정서의 공발생 경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13(1), 207-218.
- 강혜자·한덕용·전점구(2000). 정서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자기차이 이론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7(1), 51-67.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1999). 심리척도 핸드북 I, 학지사.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2000). 심리척도 핸드북 II, 학지사.
- 구재선·김의철(2006). 심리적 특성, 생활 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18.
- 김송이·엄진섭·노은여·유성은(2013). 개별정서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63-89.
- 김완석·김영진(1997). 주관적 안녕 척도: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61-81.
- 박인조·민경환(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09-129.
- 박찬옥(1990). 아동의 정서인지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4(2), 37-64.
- 박홍석·이정미(2016). 정적정서 부정적정서 척도(PANA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617-641.

서은국·구재선(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안신호·이승혜·권오식(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07-123.

이만영·이홍철(1990). 형용사 서술 의미의 구조에 관한 연구: 정서관련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2, 118-138.

이선화·김보미·유성은(2012). 차별적 정서척도(DES-IV)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147-167.

이은경·이양희(2006).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4), 93-115.

이정미·이양희(2005).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121-137.

이준웅·송현주·나은경·김현석(2008).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 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1), 85-116.

이현희·김은정·이민규(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이호준·이희경(2025). 한국판 수정된 개별정서 척도 (mDES) 의 타당화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14), 195-216.

장혜진·김영근(2020). 정서 발달 과정에서 정서의 차원 도출을 위한 대표 정서 단어 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3), 29-58.

최해연(2012). 한국의 대학생과 직장인이 경험하는 긍정정서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73-88.

최해연·최종안(2016). 한국인의 정서 구조와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2), 89-114.

한덕웅·강혜자(2000). 한국어 정서 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 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63-99.

홍창희(2004).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771-787.

Carstensen, L. L., Pasupathi, M., Mayr, U., & Nesselroade, J. (2000). Emotional experience in everyday life across the adult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4), 644-655.

- Mayer, J. D., Salovey, P., Kaufman, S. G. and Blainey, K. (1991). A broader conception of mood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1), 100-111.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Watson, D., Clark, L. A. and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Zelenski, J. M. & Larsen, R. J.(2000). The distribution of basic emotions in everyday life: A state and trait perspective from experience sampling data.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2), 178-197.

- 논문접수: 2월 9일 / 수정본접수: 4월 2일 / 게재 승인: 4월 14일
- 교신저자: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enscape@krila.re.kr

Abstract

Selection and Cluster Analysis of Emotional Vocabulary for School-Aged Children (Grades 3-6)

Dohyung Kim

This study systematically selected emotional vocabulary and analyzed its cluster structure and temporal stability for measuring emotions in school-aged children. A three-stage research design was conducted in 2016 and 2025. Preliminary emotional terms were derived from a literature review, and a 2016 survey of students in grades 3-6 was used to examine reliability, identify cluster structures, and select representative terms. The same survey was repeated in 2025 to validate temporal stabili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motional vocabulary was structured into positive and negative dimensions, with sub-clusters based on semantic similarity. Second, representative terms were selected according to frequency in prior studies, correlations with overall happiness, and children's comprehension. Third, frequent positive emotions and infrequent negative emotion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overall happiness. Fourth,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2016 and 2025 results confirmed temporal stability. These findings provide a foundation for developing measurement tools for children's emotions and offer implications for emotional education and mental health policy.

Keywords: school-aged children, emotion measurement, emotion, emotional vocabulary, cluster analysis